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문화변용정체성에 관한 연구

박 영 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Problem behaviors, Cultural Identity and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

Park, Youngsu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roblem behaviors, cultural identity and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NK) refugee youth and to suggest an appropriate approach for helping them to adjust to our society based on these findings. **Methods:** The subjects were 117 NK adolescent refugees in Hanawon. Data were collected by a demographic questionnaire, Youth Self Report (YSR), the South-North Korean cultural identity. **Results:** Problem behaviors of NK refugee youth were the highest in anxiety/depression and withdrawal behavior and were followed by internalized behavior, aggressiveness, overall problem behavior, externalized behavior, delinquency and positive behavior in that order. Acculturation was the highest in 'separation' followed by 'integration', 'assimilation' and 'marginalization' in that order.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acculturation types and problem behaviors except positive behavior.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s some important information that we have to develop specific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primarily focused on withdrawal, anxiety/depression, and internalization for the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of NK refugee youth. It is necessary to explore further research related to cultural identity, acculturation processe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acculturation types and problem behaviors.

Key Word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fugee, Adolescent, Accultur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입국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며 입국양상이 가족동반 형태가 많아지면서 청소년층도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10~19세에 해

당되는 북한이탈청소년은 2,440명으로 전체 연령층의 12%를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Unification, 2011).

북한이탈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른 독특한 발달적, 상황적 특성들이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 성인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 교육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북한이탈 과정에서의 체포

주요어: 북한이탈, 청소년, 문제행동, 문화변용정체성

Corresponding author: Park, Youngsuk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169 Dongsung-dong, Jongno-gu, Seoul 110-791, Korea.
Tel: +82-2-3668-4746, Fax: +82-2-3673-4274, E-mail: anywayyoung@knou.ac.kr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외연수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The present study was supported by the School Grant of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in 2010.

투고일: 2012년 2월 27일 /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8일

불안, 가족의 해체, 사고, 외상, 폭력, 편견, 고립, 성적유린 등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러나 심리적 적응을 돕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들은 입국초기 단기간의 적응 교육을 받은 후 심리적 외상이 치유되지 않은 채 남한 사회에 투입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 노력은 주로 학업과 사회규범 중심의 교육 부분에만 맞추어져 있다(Yang & Hwang, 2008). 다시 말해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개별적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신건강 측면의 체계적인 사정과 치료적 접근이 미진한 채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전반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사회부적응이 심각해질 경우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나다에 정착한 난민 청소년을 연구한 Hyman, Vu와 Beiser (2000)는 면담과 포커스그룹 연구방법을 통해 이들의 주된 스트레스가 학교적응, 부모-자녀관계 및 내적갈등에서 비롯되며 학교적응은 소외와 문화적 갈등, 부모-자녀관계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부모기대, 내적갈등은 문화변용, 가치관과 문화변용정체성으로 인한 것으로 규명한 바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도 남한 입국 후 적응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특히 사회체제가 현격히 다른 남한사회에 정착하게 되면서 문화변용이나 가치관의 차이, 문화변용 정체성 등의 내적 갈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행동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난민연구를 통해 문화변용에 관해 연구해 온 Berry (1995)는 문화변용 과정에서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와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것과 보다 더 큰 사회나 문화에 접촉하고 참여하려는 두 축을 기준으로 주변화(marginalization), 격리, 통합, 동화의 4가지 유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변용 유형은 개인의 건강상태, 건강증진 행동, 사회경제적 성취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문화변용의 단계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정신건강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문화변용정도 와 문화변용정체성은 새로운 사회나 문화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녕과 성공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개인자원 중 하나이다(Kim, 2006).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관련된 문화변용이나 문화변용정체성과 문제행동에 관해 수행된 연구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사회적응과 정신보건에 관한 바람직한 접근방향을 제시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실증적인 양적 연구자료가 요구되며, 문화변용정체성을 이들의 정신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근거중심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북한 문화에서 새로운 남한 사회와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문화변용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문제행동과 문화변용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고 규명함으로써 새로 정착한 남한 사회에의 적응과정을 지원하고 문제행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 및 간호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문화변용정체성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문제행동 예방과 정신보건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파악한다.
-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정체성의 특성 및 유형을 파악한다.
-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정체성 유형의 인구학적 및 탈북경험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정체성 유형에 따른 문제 행동의 특성을 비교한다.

3. 용어정의

문제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적인 행동을 말하며(Kim, 2001), 문화적응 혹은 문화변용(acculturation)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익숙한 문화 속에 살다가 새로운 문화로 들어가 심리사회적으로 맞추어 적응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문화변용은 한 문화권에서 일차적인 학습을 마친 사람이 다른 문화권에서의 특징적인 태도, 신념, 믿음, 가치관 등의 생활 방식을 습득해 나가는 다차원적 과정이다(Hazuda, Stern, & Haffner, 1988). 또한 문화변용정체성은 기존 익숙한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의 생활방식을 습득해 나가는 적응 과정에서 형성되게 되는 정체성으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문화권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는 특성을 말한다(Ahn, 1999; Keum, Kwon, & Lee, 2004).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문화변용정체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문화변용정체성 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남한 입국 후 정부 의무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교육받은 북한이탈청소년으로 8개월 동안의 10개 기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analysis 3.1.3을 이용하여 유의도 .05, 효과크기 .3, 검정력 .85로 측정된 결과 115명으로 산출되어 탈락률을 고려하여 전수에 해당하는 121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응답이 부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117 (96.7%)개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자료수집은 북한 이탈 대상자를 15년 이상 간호한 경험이 있으며 북한 이탈 주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숙련된 간호실무자를 통해 시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의 경우 2010년 6월, 본 조사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수행되었다. 연구자가 간호실무 제공자인 연구보조자에게 연구목적, 자료수집방법과 주의 사항 등을 교육한 후 연구보조자가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여 설문을 하였다. 본 연구의 윤리적 고려 측면에서는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을 사용하였고 헬싱키 선언에 입각한 연구목적, 연구윤리, 연구과정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참여자들의 자료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며, 연구 도중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3. 연구도구

1)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행동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주로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적인 행동으로(Kim, 2001),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 (1991)가 제작한 도구를 Oh, Ha, Hong과 Lee (2001)가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를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대상자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비

행, 공격성, 내재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적절한 행동 문항으로 구성된 긍정행동의 9개 하부척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도구는 지난 6개월 동안 청소년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 전혀 아니다(0점), 가끔 그렇다(1점), 자주 그렇다(2점)로 측정하도록 한 3점 Likert 척도이며, 각 하부 척도는 해당 행동 항목들의 합으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도구(119문항)의 전체 Cronbach's α = .94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위축 .65, 불안/우울 .87, 신체 .67, 비행 .55, 공격 .80, 내재화 .86, 외현화 .83, 긍정행동 .83이었다.

2)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정체성 척도

본 도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 정착 및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서 Ahn (1999)이 아시아계 미국인의 민족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대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KAEIs (Korean-American Ethnic Identity Scale)를 북한이탈 청소년에게 맞게 수정한 Keum 등(2004)의 도구를 예비조사를 거친 후 사용하였다. 즉 본 연구도구는 Ahn (1999)의 50개 문항에서 북한 이탈 청소년을 교육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적타당도와 요인분석을 통해 선정된 38문항으로서 남한 문화에 대한 관심과 남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려는 '남한문화변용 정체감' 요인 20문항과 북한 문화와 정체감을 유지하려는 '북한문화변용 정체감' 요인 18개 문항으로 구성된다(Keum et al., 2004). 이는 정체감과 관련해서 청소년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전혀 아니다(1점),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로 측정하도록 한 5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변용정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eum 등(2004)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Cronbach's α =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s α = .87, 하위영역별 문화변용정체감의 신뢰도는 남한문화 정체감 .89, 북한문화 정체감 .81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 따라 대상자의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및 문제행동과 문화변용정체성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범위, 평균과 표준편차의 서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문화변용정체성 유형별 문제행동 비교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여학생이 85명(72.6%)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연령은 17~19세가 73명(62.4%)으로 가장 많았으며, 14~16세가 36명(30.8%)이었다. 북한에서의 교육경험은 76명(65.0%)이 고등중학교 재학 혹은 졸업자였으며, 무학이 11명(9.4%)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은 보통이 54명(46.2%)으로 가장 많았고, 중상 혹은 상이 41명(35.1%), 중하 혹은 하가 20명(17.1%)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70명(59.8%)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39명(33.3%)이었다. 자신의 건강상태를 보통으로 지각하는 대상자는 56명(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좋거나 매우 좋은 상태라고 한 대상자는 48명(41.0%), 나쁘거나 매우 나쁜 경우는 10명(8.6%)이었다. 북한에서의 경제상태가 나쁘거나 매우 나쁜 상태였다고 한 대상자는 59명(50.4%)이었다(Table 1).

2. 대상자의 문제행동과 문화변용정체성

문제행동의 세부영역별 평균점수는 불안/우울 0.6점, 위축 0.6점으로 가장 높은 영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내재화 0.5점, 공격 0.5점, 총 문제행동 0.4점, 외현화와 신체화의 평균은 0.4점, 비행 평균은 0.3점으로 내재화 행동의 평균이 외현화 행동보다 높았고 비행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긍정행동의 평균은 0.1점이었다. 문화변용정체성은 남한정체성의 평균이 3.7점, 북한문화변용정체성 평균은 2.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문화변용정체성 유형은 북한문화변용정체감과 남한문화변용정체감 각각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주변화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2 (27.4)
	Female	85 (72.6)
Age (year)	≤ 13	1 (0.9)
	14~16	36 (30.8)
	17~19	73 (62.4)
	≥ 20	7 (6.0)
Education in North Korea	None	11 (9.4)
	Primary school	27 (23.0)
	Advanced middle School	76 (65.0)
	College	2 (1.7)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High	7 (6.0)
	Upper middle	34 (29.1)
	Middle	54 (46.2)
	Lower middle	13 (11.1)
	Low	7 (6.0)
Religion	Catholicism	13 (11.1)
	Protestant	57 (48.7)
	Buddhism	1 (0.9)
	Etc	1 (0.9)
	None	39 (33.3)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15 (12.8)
	Good	33 (28.2)
	Barely acceptable	56 (47.9)
	Bad	9 (7.7)
	Very bad	1 (0.9)
Economic status in North Korea	Very low	30 (25.6)
	Low	29 (24.8)
	Moderate	36 (30.8)
	High	14 (12.0)
	Very high	5 (4.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roblem Behaviors and Cultural Identity

Variables	Categories	n	Likert scale	Likert scale
			Range	M±SD
Problem behaviors	Withdrawal	115	0.0~1.9	0.6±0.38
	Anxiety/Depression	110	0.1~1.5	0.6±0.35
	Somatic	78	0.0~1.4	0.4±0.30
	Delinquent	112	0.0~0.9	0.3±0.20
	Aggressive	104	0.0~1.2	0.5±0.28
	Internalized	72	0.0~1.3	0.5±0.29
	Externalized	101	0.0~0.9	0.4±0.22
	Overall problem behaviors	60	0.1~1.1	0.4±0.23
	Positive	107	0.0~0.1	0.1±0.02
Ethnic identity	South Korea	99	1.7~4.8	3.7±0.59
	North Korea	109	1.2~3.9	2.6±0.52
	Total ethnic identity	96	1.5~4.1	3.2±0.37

(marginalization), 분리, 통합, 동화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즉 남한문화변용정체감 점수가 낮으면서 북한문화변용정체감 점수가 낮은 경우 ‘주변화’, 남한문화변용정체감 점수가 낮으면서 북한문화변용정체감 점수가 높은 경우 ‘분리’, 남한문화변용정체감 점수가 높으면서 북한문화변용정체감 점수가 낮은 경우 ‘동화’로 정의하였다. 대상자의 문화변용정체성 분석 결과 ‘분리’가 42명(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영역에서는 남한정체성 평균이 3.3, 북한정체성 평균이 2.9였다. ‘통합’은 33명(34.4%)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들의 남한정체성 평균은 4.1, 북한정체성 평균이 2.7이었으며 ‘동화’는 18명(18.8%)으로 남한정체성 평균이 3.9, 북한정체성 평균이 1.9로 ‘통합’형에서는 남한정체성 점수와 북한정체성 점수가 모두 높은 반면 ‘동화’형은 남한정체성 점수가 높은 반면 북한정체성 점수가 가장 낮아 적응과정에서 정서적, 문화적 지지가 요구되는 대상자임을 시사해준다. ‘주변화’는 3명(3.1%)으로 적은 수이나 남한정체성과 북한정체성이 모두 낮아 남한 사회에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적절한 지지와 관심이 요구되는 대상자로 나타났다(Table 3).

3. 대상자의 문화변용정체성 유형별 인구학적 및 탈북경험 특성

대상자의 문화변용정체성 유형에 따른 성별 특성에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분리’형이 11명(26.2%)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합’ 8명(8.3%)과 ‘동화’ 3명(3.1%) 순이었다. 여자 청소년도 ‘분리’형이 31명(32.3%)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합’ 25명(26%)과 ‘동화’ 15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4~16세와 17~19세에서 모두 ‘분리’, ‘통합’, ‘동화’ 순으로

많았으며, 20세 이상에서는 ‘통합’이 ‘분리’보다 많았으며, 13세 미만은 ‘동화’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탈북경험과 관련된 특성에서는 제3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가 64명(6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에서 30명(31.3%)이 ‘분리’형에 속하였다. 다음으로는 1년 이상 5년 이하가 15명(15.6%)이었으며, 이들은 ‘통합’, ‘분리’, ‘동화’ 순으로 많았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9명(9.4%)이었으며, 이들은 ‘통합’, ‘동화’, ‘분리’ 순으로 많았으며, 10년 이상인 경우는 ‘분리’형에 속하였다. 남한체류기간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67명(6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분리’, ‘통합’, ‘동화’, ‘주변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이나 제3국에 가족이 남아있는 경우가 77명(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에서 부모 모두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7명(7.3%)이었으며, 아버지 어머니 중 한쪽 부모와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44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문화변용정체성 유형은 ‘통합’, ‘분리’, ‘동화’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없이 형제나 자매와 거주하는 경우와 혼자 거주하는 경우는 20명(20.9%)으로 나타났다. 북송경험은 6명(6.4%)이 있었고, 88명(93.6%)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 정착에 만족하는 경우는 86명(89.6%)으로 가장 많았으나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약간 후회된다는 청소년도 10명(10.4%)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나 정신과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9명(83.1%)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문화변용정체성은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 순이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57명(74.0%)이었으며, 이중에서 ‘통합’형이 28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분리’형이었다. 전문가를 방문할 의지를 보이는 대상자는 54명(68.4%)으로 이중에서 ‘통합’형이 23명(29.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분리’형이었다(Table 4).

Table 3. Cultural Identity Clusters

Variables	n (%)	South Korea ethnic identity (Likert scale score)	North Korea ethnic identity (Likert scale score)
		M±SD	M±SD
Marginal	3 (3.1)	1.9±0.32	2.0±0.59
Isolation (North Korea)	42 (43.8)	3.3±0.28	2.9±0.28
Bicultural	33 (34.4)	4.1±0.29	2.7±0.41
Assimilation (South Korea)	18 (18.8)	3.9±0.43	1.9±0.33
Total	96 (100.0)	3.7±0.59	2.6±0.52

Table 4. Characteristics of Cultural Identity Cluster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rginal	Isolation (North Korea)	Bicultural	Assimilation (South Korea)	Total
		n (%)	n (%)	n (%)	n (%)	n (%)
Gender	Male	2 (2.1)	11 (11.5)	8 (8.3)	3 (3.1)	24 (25.0)
	Female	1 (1.0)	31 (32.3)	25 (26.0)	15 (15.6)	72 (75.0)
Age (year)	≤ 13	0 (0.0)	0 (0.0)	0 (0.0)	1 (1.0)	1 (1.0)
	14~16	1 (1.0)	15 (15.6)	7 (7.3)	4 (4.2)	27 (28.1)
	17~19	2 (2.1)	25 (26.0)	21 (21.9)	13 (13.5)	61 (63.5)
	≥ 20	0 (0.0)	2 (2.1)	5 (5.2)	0 (0.0)	7 (7.3)
Duration of stay in third country	< 12 month	3 (3.1)	30 (31.3)	18 (18.8)	13 (13.5)	64 (66.7)
	≥ 1~< 5 year	0 (0.0)	5 (5.2)	8 (8.3)	2 (2.1)	15 (15.6)
	≥ 5~< 10 year	0 (0.0)	2 (2.1)	4 (4.2)	3 (3.1)	9 (9.4)
	≥ 10 year	0 (0.0)	1 (1.0)	0 (0.0)	0 (0.0)	1 (1.0)
Duration of living in South Korea	< 3 month	0 (0.0)	8 (8.3)	8 (8.3)	8 (8.3)	24 (25.0)
	≥ 3~< 6 month	2 (2.1)	32 (33.3)	24 (25.0)	9 (9.4)	67 (69.8)
	≥ 6 month	0 (0.0)	2 (2.1)	1 (1.0)	1 (1.0)	4 (4.2)
Family remained in North Korea or third country	None	0 (0.0)	8 (8.5)	5 (5.3)	4 (4.3)	17 (18.1)
	Yes	3 (3.2)	33 (35.1)	28 (29.8)	13 (13.8)	77 (81.9)
Living with family	Parent	0 (0.0)	5 (5.2)	2 (2.1)	0 (0.0)	7 (7.3)
	Mother or father	1 (1.0)	15 (15.6)	20 (20.8)	8 (8.3)	44 (45.8)
	Brother/sisters etc	0 (0.0)	5 (5.2)	3 (3.1)	1 (1.0)	9 (9.4)
	None	0 (0.0)	3 (3.1)	4 (4.2)	4 (4.2)	11 (11.5)
	No answer	2 (2.1)	14 (14.6)	4 (4.2)	5 (5.2)	25 (26.0)
Experience expelled to North Korea	None	3 (3.2)	39 (41.5)	31 (33.0)	15 (16.0)	88 (93.6)
	Yes	0 (0.0)	1 (1.1)	2 (2.1)	3 (3.2)	6 (6.4)
Satisfaction for settlement in South Korea	Very regretful	0 (0.0)	0 (0.0)	0 (0.0)	0 (0.0)	0 (0.0)
	A little regretful	1 (1.0)	1 (1.0)	0 (0.0)	0 (0.0)	2 (2.1)
	I don't know	0 (0.0)	5 (5.2)	2 (2.1)	1 (1.0)	8 (8.3)
	Satisfied	2 (2.1)	27 (28.1)	8 (8.3)	6 (6.3)	43 (44.8)
	Very satisfied	0 (0.0)	9 (9.4)	23 (24.0)	11 (11.5)	43 (44.8)
Experience to professional help	None	0 (0.0)	9 (10.8)	4 (4.8)	1 (1.2)	14 (16.9)
	Yes	2 (2.6)	24 (28.9)	28 (33.7)	15 (18.1)	69 (83.1)
Perceived needs for professional help	None	0 (0.0)	11 (14.3)	6 (7.8)	3 (3.9)	20 (26.0)
	Yes	2 (2.4)	18 (23.4)	24 (31.2)	13 (16.9)	57 (74.0)
Willingness to visit professional help	None	0 (0.0)	12 (15.2)	8 (10.1)	5 (6.3)	25 (31.6)
	Yes	2 (2.5)	18 (23.4)	23 (29.1)	11 (13.9)	54 (68.4)

4. 대상자의 문화변용정체성 유형별 문제행동

‘주변화’, ‘분리’, ‘통합’, ‘동화’의 문화변용정체성의 유형별 문제행동을 비교한 결과 위축, 불안/우울, 신체화, 비행, 공격, 내재화, 외현화와 총 문제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긍정행동점수는 문화변용정체성의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Duncan 다중범위 검정에 의해 유의한 차이가 없는 집단을 동일한 집단군으로 묶는 경우 ‘분리’형, ‘통합’형, ‘동화’형이 같은 집단으로 묶였으며, 이

들 집단은 ‘주변화’형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이와 같이 정체성 유형에 따른 문제행동의 평균차이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 위축행동 점수가 ‘주변화’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불안/우울도 ‘주변화’형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동화’형이었다. 또한 신체화 행동은 ‘동화’형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통합’형이었고, ‘주변화’에서 가장 낮았다. 비행행동은 ‘주변화’에서 가장 낮았으며, ‘동화’형에서 가장 높았고, ‘분리’형이 유사하게 높았다. 공격행동은 ‘주변화’에서 낮았으며, ‘분리’형이 가장 높았고, ‘동화’형에서 유사하게 높

Table 5. Means of Major Variables according to Cultural Identity Clusters

Variables	Categories	n	Marginal	Isolation (North Korea)	Bicultural	Assimilation (South Korea)	F	p
			M±SD	M±SD	M±SD	M±SD		
Problem behaviors	Withdrawal	95	0.8±0.79	0.6±0.39	0.6±0.37	0.6±0.34	0.25	.864
	Anxiety/depression	90	0.8±0.49	0.6±0.34	0.6±0.34	0.7±0.27	0.80	.497
	Somatic	63	0.0±0.00	0.4±0.29	0.4±0.25	0.6±0.36	2.66	.056
	Delinquent	94	0.2±0.10	0.3±0.23	0.2±0.16	0.3±0.19	0.52	.670
	Aggressive	86	0.3±0.07	0.5±0.27	0.4±0.27	0.5±0.23	0.56	.645
	Internalized	58	0.9±0.00	0.5±0.29	0.5±0.29	0.6±0.32	1.16	.332
	Externalized	85	0.3±0.00	0.4±0.22	0.4±0.21	0.4±0.19	0.49	.690
	Overall problem behaviors	49	0.5±0.00	0.4±0.21	0.4±0.24	0.4±0.20	0.14	.936
	Positive	88	0.0±0.00	0.1±0.02	0.1±0.02	0.1±0.02	8.41	<.001
Ethnic identity	South Korea	96	1.9±0.30	3.3±0.28	4.1±0.29	3.9±0.43	78.62	<.001
	North Korea	96	2.0±0.59	2.9±0.28	2.7±0.41	1.9±0.33	36.65	<.001
	Total ethnic identity	96	1.9±0.41	3.1±0.22	3.5±0.24	3.0±0.24	49.47	<.001

게 나타났다. 즉 문화변용정체성의 ‘주변화’형은 위축과 불안/우울의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와 총 문제행동 점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으나 신체화, 비행, 공격의 외현화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행행동과 신체화 행동은 ‘동화’형이 가장 높았고, 공격행동은 분리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동화’와 ‘분리’형에서 외현화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정체성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긍정행동은 ‘주변화’형에서 가장 낮았으며, ‘통합’형에서 가장 높았다(Figure 1).

논 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정신보건을 증진시키는 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발달적 혹은 상황적 과제이기도 한 문화변용정체성을 파악하고자 수행된 양적 연구이다.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은 청소년의 건강은 물론 성인기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문제 행동에 관한 관심이 요구되나(Hyun, Nam, Ahn, & Kim, 2005)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적을 뿐 아니라 주로 소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탐색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소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탐색 연구들이 많은 상황에서 수행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문화변용정체성에 관한 양적 실증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다양한 기관이나 시설, 혹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인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여학생이 72.6%, 연령은 17~19세가 62.4%, 14~16세가 30.8%였으며, 북한에서 고등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들이 65.0%로 나타났다. 즉 남한사회와 비교하면 주로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연령층으로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8~25세의 미국에 거주하는 소말리아 오로모족 난민 청소년 3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Halcon 등(2004)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가 66%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난민 청소년들이 정착국가에서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령에 따른 접근전략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Halcon et al., 2004), 특히 이들의 교육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중단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제행동의 세부영역별로 보면 불안/우울, 위축 행동이 가장 많았으며, 내재화, 공격, 총 문제행동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외현화, 신체화, 비행과 같은 행동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체화, 비행, 공격과 같은 외현화 행동이 낮게 나타난 것은 Yang과 Hwang (2008)의 연구에서 비행 및 과잉행동 척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던 것과 유사한 현상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행동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고등학교 12세부터 17세의 남녀 청소년 3,27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Ha, Lee, Oh 와 Hong (1998)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공격성이나 비행 등과 같이 외현적으로 드러난 행동 문제를 가장 일차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이 신체 증상과 우울/불안 등을 중요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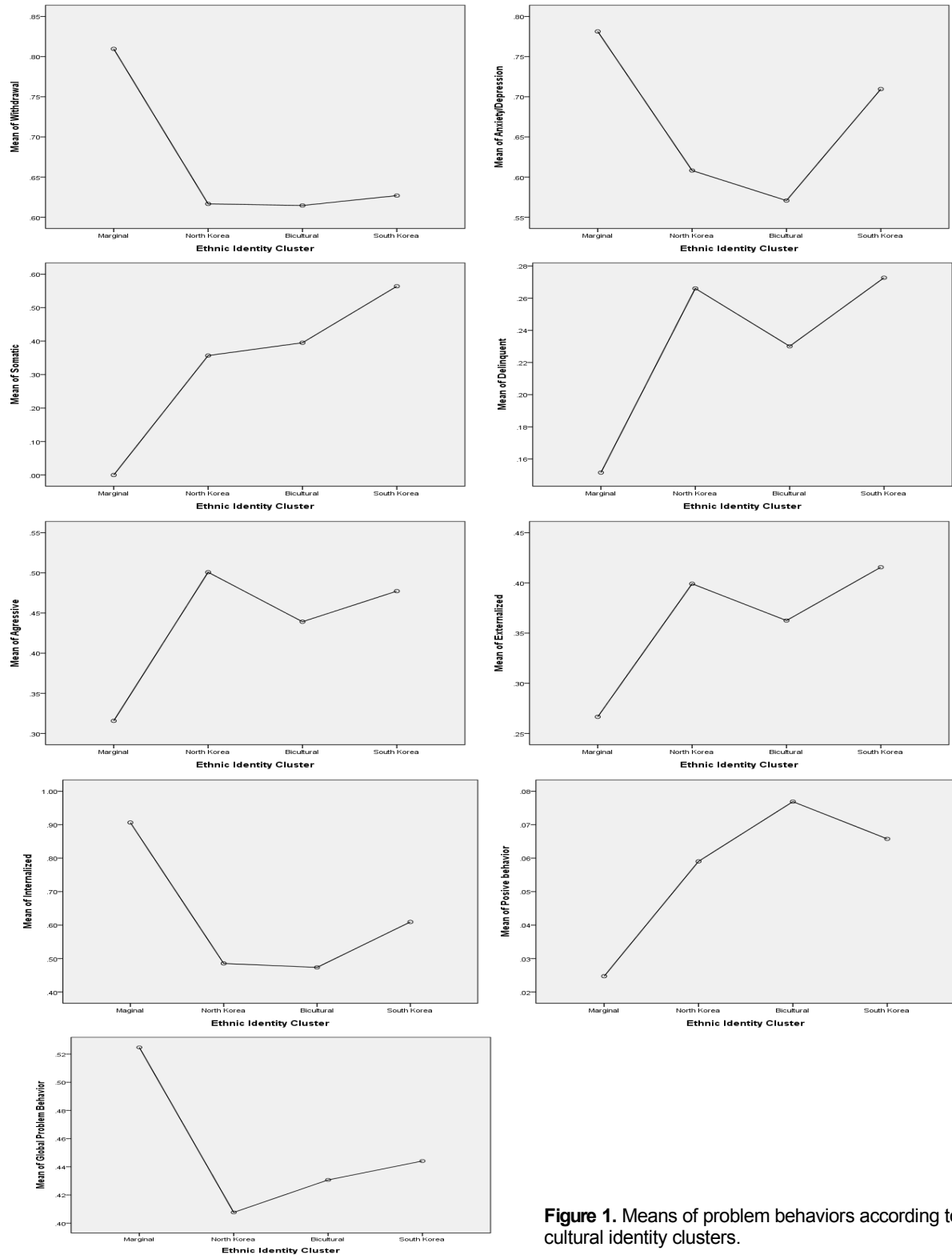


Figure 1. Means of problem behaviors according to cultural identity clusters.

인식하는 반면, 청소년들은 우울/불안, 위축 등 내재화된 문제를 가장 변별력 있게 자각하고 그 다음이 공격성, 소란/방해 등의 외현적 행동에 대한 평가이었던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는 청소년들 스스로 평가한 것으로 실제 외현화 문제영역이 성인들이 평가한 것 보다 민감성 있게 평가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등 내재화 문제에 대한 자각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Ha et al., 1998)에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많은 수가 여자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Ha (2005)가 문제행동 평가척도에서 사회적 문제,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문제의 하부척도와 남자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특수척도인 자해/정체감의 하부척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 점은 문제행동 평가에서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따라서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양상의 성별차이를 추후 연구에서 보다 명백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문화변용정체감 유형은 ‘분리’형이 가장 많았으며, ‘통합’, ‘동화’ 순이었고, ‘주변화’가 가장 적었다. 이는 Keum 등(2004)의 연구에서 남한 입국 후 국내 거주 기간에 따라 문화변용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하나원 시절 4개월 이하의 경우 ‘통합’과 ‘동화’를, 보호기간이 끝난 후 혼자 살기 시작한 후 1년 동안에는 ‘분리’를, 1~2년 사이에는 ‘주변화’를 나타냈으며, 2년 경과 후에는 ‘통합’ 유형이 증가한다고 해석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Keum 등(2004)의 연구가 주거형태와 남한입국 기간이 다양한 북한이탈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대상자 117명의 94.8%가 남한 입국 후 6개월 미만의 하나원에 있는 경우로 남한 입국 후 남한문화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이 적어 남한문화변용정체감 점수가 낮은 상태로 여전히 기존의 북한문화변용정체감이 유지되고 있는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은 성별, 연령별 정체감 특성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모두에서 ‘분리’형이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도 중학생에 해당되는 14~16세와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17~19세 모두에서 ‘분리’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남한문화변용정체감은 단기간의 교육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험 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획득되고 긍정적으로 발전되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단기간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생활 속에서의 문화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의 긍정적 경험과 지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탈북경험과 관련된 특성에서는 제3국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 중에서는 ‘분리’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5년 이상 10년 이하 순이었고 이들 모두 ‘통합’형이 가장 많았으며, 10년 이상인 경우 ‘분리’형이었다. 이처럼 탈북 후 초기에는 ‘분리’형을 보이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통합’형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10년 이상의 장기간을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는 새로운 문화에 ‘동화’나 ‘통합’되기보다 기존 정체감이 그대로 지속되거나 강화되고, 새로운 사회로부터는 소외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Nash (1991)의 새로운 문화에 접한 초기에 이질 문화에 대해 호감을 갖고 좋은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는 다른데,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숨어 지내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민사회에의 정착과정과는 다를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가족이 북한이나 제3국에 남아있으며, 현재 부모 모두와 살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로서 정신건강이나 적응에 취약한 대상으로 파악된다. 이는 연구대상자 중 83.1%가 상담이나 정신과 방문 경험자이었으며, 스스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4%, 추후 전문가를 방문할 의지가 있는 경우가 68.4%로 나타난 결과로도 잘 알 수 있다. 이들 중에서 ‘통합’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분리’형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관심이 요구될 것으로 유추되는 ‘분리’형이나 ‘주변화’형 뿐만 아니라 ‘통합’형인 경우에도 상당수가 도움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높은 문화변용은 보다 많은 스트레스와 연관되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우울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Shen과 Takeuchi (2001)의 연구와 유사한 현상으로 문화변용이 많이 일어난 형태라 할 수 있는 ‘통합’형의 경우 많은 스트레스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책, 중재를 제공할 경우 특정 문화변용정체성 유형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각 유형의 특성과 요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학적 접근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화변용정체성 유형별 문제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주변화’형은 위축과 불안/우울의 내재화 문제행동 점수와 총 문제행동 점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으나 신체화, 비행, 공격의 외현화 행동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행행동과 신체화 행동은 ‘동화’형이 가장 높았고, 공격행동은 분리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동화’와 ‘분리’형에서 외현화 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유형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적절한 행동을 나타내는 긍정행동에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p < .001$) 정체성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긍정행동은 ‘주변화’형에서 가장 낮았으며, ‘통합’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문화변용 정체성의 각 유형에 따라 보다 주의 깊게 사정하고 일차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남한 내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외현화 및 내재화의 행동문제는 이들의 심리적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적 영역, 탈북과정 상의 문제영역과 교육적 영역으로 특히 외상경험의 정도와 건강상태 그리고 학교에 대한 만족도라는 측면에서(Baek, Kil, Yoon, & Lee, 2007),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교육 및 적응을 위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특히 신체 및 정신보건 영역의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의료인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새롭게 정착하는 나라의 문화에 대한 역량과 자기가 속했던 기존 사회나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역량은 자아개념을 통한 간접경로를 통해 이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Oppedal, Røysamb, & Sam, 2004)과 문화변용정체성의 정도는 자존감, 자아정체성,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 등의 다양한 심리적 안녕 지표와 일관되게 정적 관계를 보이므로(Kim, 2006), 보다 바람직한 정책과 구체적인 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정체성의 발달 특성과 문제행동 그리고 자아개념, 자존감, 가족지지 등의 보호요인과의 관계 등 이들의 문화변용정체성과 문제행동을 탐색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질적, 양적인 추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문화변용정체성과 문제행동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요구에 부합되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간호접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볼어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들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중심의 적응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결론

본 연구는 자신이 거주하던 나라를 떠나 남한에서 정착하고 적응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문화변용정체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위축, 불안/우울이 높게 나타났으며, 내재화, 공격, 총 문제행동, 외현화, 신체화, 비행, 긍정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변용정체성은 '분리', '통합', '동화', '주변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유형별 문제행동에서 긍정행동은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변화'형에서 가장 낮았으며, '통합'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문제행동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적 도움이 요구되며, 이들의 상황 및 발달기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 관련주제로 접근함으로써 문화변용정체성을 발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간호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변용정체성이 문제행동이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지속적인 추후 연구와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hn, H. S. (1999). *Juggling two worlds: Ethnic identity of Korean-Americ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USA.
- Baek, H. J., Kil, E. B., Yoon, I. J., & Lee, Y. R. (2007). A study on psychologic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adolescent refugees in South Korea. *Studies on Korean Youth*, 18(2), 183-211.
- Berry, J. W. (1995). Psychology of acculturation. In N. R. Goldberg, & J. B. Veroff (Ed.), *The Culture & Psychology Reader* (pp. 457-488).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Ha, E. H. (2005).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youth self report (K-YSR). *Sookmyung Journal of Child Study*, 18, 83-103.
- Ha, E. H., Lee, S. J., Oh, K. J., & Hong, K.-E. M. (1998). Parent-adolescent agreement in the assessment of behavior problems of adolescents: Comparison of factor structures of K-CBCL and YSR. *Korean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9(1), 3-12.
- Halcon, L. L., Robertson, C. L., Savik, K., Johnson, D. R., Spring, M. A., Butcher, J. N., et al. (2004). Trauma and coping in Somali and Oromo refugee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5(1), 17-25.
- Hazuda, H. P., Stern, M. P., & Haffner, S. M. (1988). Acculturation and assimilation among Mexican-Americans: Scales and population-based data. *Social Science Quarterly*, 69, 687-706.
- Hyman, I., Vu, N., & Beiser, M. (2000). Post-migration stresses among Southeast Asian refugee youth in Canada: A research not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1(2), 281-293.
- Hyun, M. S., Nam, K. A., Ahn, Y. M., & Kim, M. Y. (2005). The recognitions of adolescents, parents, and teachers for female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Korean*

-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 13-22.
- Keum, M. J., Kwon, H. S., & Lee, H. W. (2004). The acculturation process of North Korean adolescents refuge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2), 295-308.
- Kim, H. S. (2006). Cultural identity,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of immigrant youths-review study for Canada's immigrant youth popul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 384-391.
- Kim, S. J. (2001).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stressors from school on problem behaviors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focusing on the stress coping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inistry of Unification, Inc. (2007, February 1). *Demographic situation of North Korea refugee admitted and number in South Korea*. Retrieved August 29, 2011, from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
- Nash, D. (1991). The course of sojourner adaptation: A new test of the U-curve hypothesis. *Human Organization*, 50(3), 283.
- Oh, K. J., Ha, E. H., Hong, K. E., & Lee, H. R. (2001). *K-YSR*. Seoul: Joongang Jeukseung.
- Oppedal, B., Røysamb, E., & Sam, D. L. (2004). The effect of acculturation and social support on change in mental health among young immigrant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6), 481-494.
- Shen, B. J., & Takeuchi, D. T. (2001). A structural model of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status among Chinese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3), 387-418.
- Yang, K. M., & Hwang, S. T. (2008). An initial study into the psychological adaptation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the first stages of their transition to life in South Korea. *Studies on Korean Youth*, 19(2), 333-358.